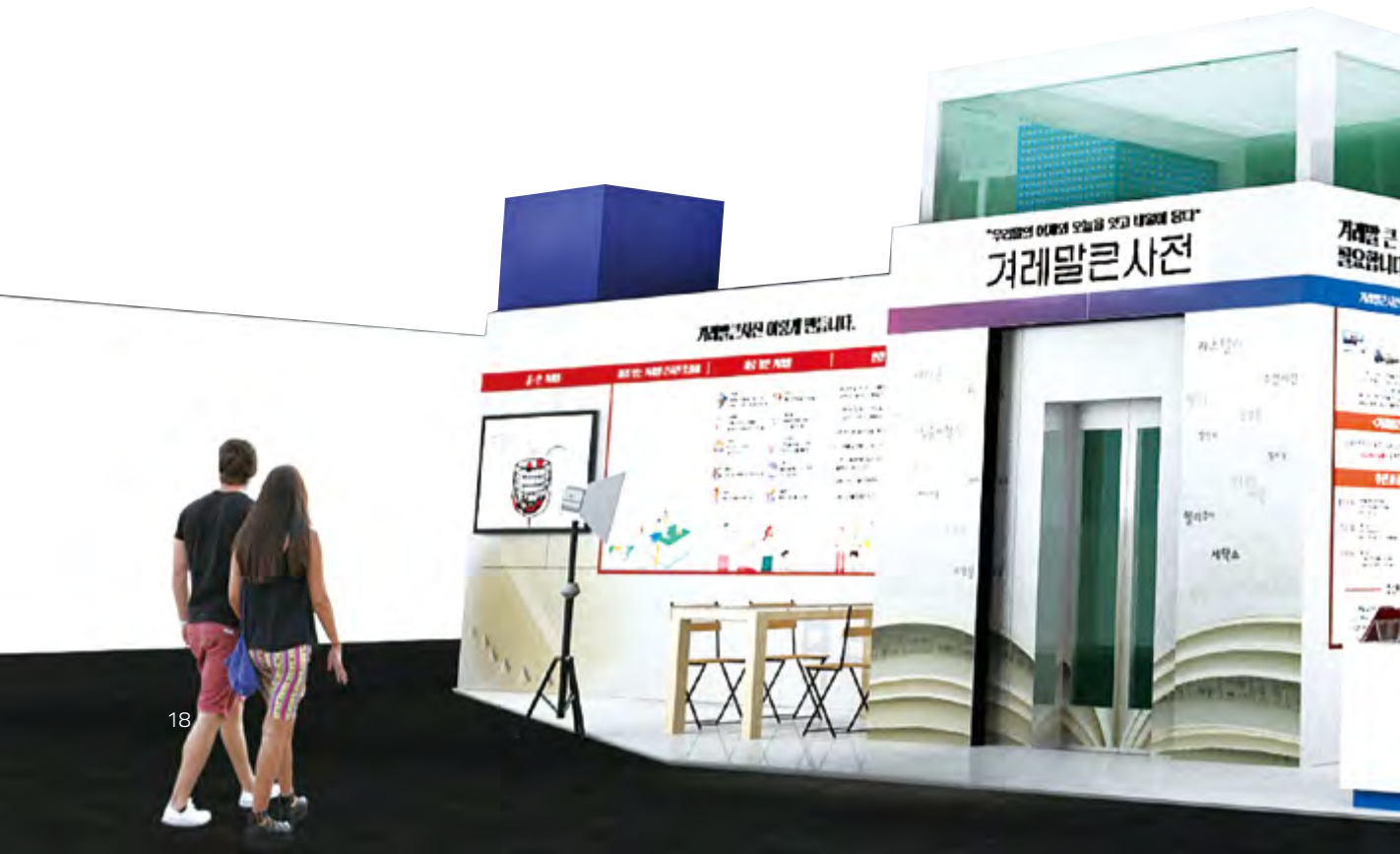


# 남북의 말을 잇는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상상하라

오는 11월 편찬사업회는 서울 시민청에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연다. 서울시의 배려와 후원으로 설치하고 통일부의 도움으로 운영하는 《겨레말큰사전》 공간이 탄생한 것. 지난해 10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한의 동질감을 되찾는 일이면서 동시에 많은 외래어 사용으로 잃어버린 한글의 고유언어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고, 올해 10월 9일 한글날 경축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 남북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찬사업회는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남과 북의 말을 잇다’를 주제로 한 홍보관이다. 이번 기획특집은 홍보관 개관을 앞두고 홍보관의 형식과 내용, 겨레말 홍보 방법과 가능성, 젊은 세대가 선호할 홍보관 등을 맘껏 상상해봤다.



특히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과 집담회를 열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홍보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편찬사업회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지만 1020세대가 즐겨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알리는 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포토존, 굿즈, 게임 등을 통한 젊은 세대의 유입 효과와 SNS, 유튜브 등의 홍보 효과를 노릴 예정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상상해볼 차례다.

